

2022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문학 분야 】 심의평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문학> 분야별로 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동시, 동화), 평론, 기타장르 가운데 시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모자가 포함되었다. 심의 기준은 ‘작품성’과 ‘기대가치’로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작품성의 경우는 구체성, 우수성, 예술성, 지속가능성이 평가되었는데, 그간 단 한 번도 선정된 경험이 없는 경기도 거주 문학인의 “생애 첫 지원”이란 점에서 대상작품의 ‘작품성’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투고 작품들이 뛰어난 역량을 지닌 문학작품이라 하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완결성이 떨어지는 작품도 다수 눈에 띄었다. 또한, 일상적 소재와 주제를 다루더라도 내용의 구체성과 심미적인 예술성은 담보되어야 마땅하다.

기대가치의 경우는 작품이 향후 문학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성에 대한 평가로, “생애 첫 지원”인 만큼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거는 기대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해당 작품이 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예술향유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작품인지는 응모자들이 좀 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 응모작품은 응모작가의 문학관 혹은 문학세계를 드러내는 작품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문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응모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생애 첫 문학”에 거는 문학적 기대(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전염병의 창궐과 경제적 위기와 전쟁이 위협하는 시기에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응모자들이 힘을 내어 꺾대를 꽂을 문학의 향방이 궁금하다. 2022년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문학>으로 선정되신 20인의 문학인은 문학의 위기와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문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5.10.

심의의원 전해수 (문학평론가)
 이경호 (문학평론가)
 노지영 (문학평론가)